

최장수 총리 재임한 아베, 日우익 상징 정치인

야스쿠니 참배·수출 규제·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천 등으로 한국과 대립 퇴임후에도 최대 파벌 수장 유지...온건파 기시다 총리, 한일 관계 유연성 전망

아베 정치인생·한국과의 관계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숨진 아베 신조(67) 전 총리는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정치인이다.

총리 재임 기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파문을 일으켰고,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판결에 반발해 한국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기도 했다.

◇두 차례 총리 재임...역사문제로 한국과 대립=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 9개월 총리로 재임한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다.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가 실정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조기 퇴진했다.

5년 뒤인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해 독주 체제를 유지하다 2020년 9월 질병 악화로 사임할 때까지 7년 9개월 연속 재임했다.

중의원(하원) 의원이었던 그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 등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는 종전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복역까지 했으나 1957년 총리가 됐던 인물이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냈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는 현재 방위상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으나 여론 악화와 2020년 초 코로나 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다.

경제추진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디스플레이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코로나19 등 요인이 겹치면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집권 기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한국, 중국과도 대립했다. 아베는 박근혜 정권과 2015년 한일 외

교장관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자 중심이 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한 뒤 합의는 표류했다. 아베는 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 판결에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도 개헌 매달리고 방위력 강화 앞장=아베는 2020년 9월 퇴임 후에도 자민당 내 최고 파벌인 아베파(옛 호소다파)의 수장 역할을 했다. 작년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유권자 선호도 1위인 고노 다로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베가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는 퇴임 후에도 필생의 과업으로 매달려 온 개헌과 방위력 강화를 앞장서 추진했다.

아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베의 개헌과 방위비 강화 주장 등은 고스란히 이번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됐다.

◇일본 정치·한일관계 영향은=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역할 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가 이끌어 온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에는 '절대적 리더'인 그를 대신해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다.

강경 우파인 아베파의 힘이 약해지면 전통적으로 온건파인 '기시다파'를 이끄는 기시다 총리에게는 자신의 색깔을 내는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 한국이 강하게 반대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보류하려고 하다가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이) 역사전(戰)을 걸어 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압박하자 추천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치역정

1954년 9월 21일	출생
1993년 7월 18일	아버지의 선거구(아마구시 1구) 물러받아 중의원 당원
2000년 12월 5일	모리 요시로 내각서 내각관방 부(副)장관 임명
2005년 10월 31일	제3차 고이즈미 내각 관방장관 임명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선출
26일	제90대 총리 취임, 1차 집권기 시작
2007년 9월 12일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 표명
27일	총리 퇴임 (약 1년 만)
2012년 9월 26일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 총재로 재선출
12월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정권교체 성공
26일	제96대 총리로 취임, 2차 집권기 시작
2015년 9월 8일	자민당 총재로 '무투표' 재선
2017년 3월 5일	자민당 총재 임기 '2기 6년'서 '3기 9년'으로 변경
2018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3선
2019년 11월 20일	통합 재임일 2,887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2020년 8월 24일	2차 집권기 재임일만으로도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 기록
28일	건강문제로 사의 표명
9월 16일	총리 퇴임 (약 7년 9개월 만)
2022년 7월 8일	선거유세 도중 총격피습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아베라는 큰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치색을 내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서 "그중에는 한일관계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국제선 14일 베트남으로

이달 중 5개 노선 주 28편 운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장기간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오는 14일부터 다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다. 10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7월 중 4개 항공사 5개 노선 주 28편 국제선이 다시 운항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3월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여만이다.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 퍼시픽항공의 베트남 나트랑(냐짱)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이 다시 시작된다. 퍼시픽항공은 16일부터는 다낭 노선을 4일 주기로 운항하고, 제주항공은 다낭(20일 시작)과 방콕(27일 시작) 등 노선을 매주 수·토요일 운항한다. 7월 말에는 비엠펙항공이 다낭, 달랏 등 노선을 운항하고, 훈남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에 나선다. 8월 운항 스케줄은 일부 항공사만 계획을 통보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무안공항은 2020년 3월 2일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데 이어 같은 달 6일 국내선 운항까지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소형항공사의 김해, 제주 노선 등 국내선 운항이 재개됐지만, 국제선 운항은 2년 4개월여 동안 중단이 이어졌다.

무안공항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해 현재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며 "오랜만에 운항이 재개되는 만큼 방역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골드버그 신임 주한 美대사 부임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필립 골드버그(사진)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한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대사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 초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지 두 달여만인, 약 1년 6개월간 이어져 온 주한 미국대사의 공백 상황도 해소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임명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 이임했고 이후엔 공관 차석이 대사 업무를 대리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 필리핀,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4번째 대사 부임지일 만큼 베테랑 외교관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정책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제재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북한에 대해선 비교적 강경하게 발언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강행될 수 있는 등 도발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수시로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에 맞춰 기존의 군사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동맹의 범위를 경제안보 등으로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본사인사

▲장봉선 : 서부취재본부 목포주재 차장

<7월 11일자>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 재유행...정부, 방역강화 고민

BA.5변이·여름철 이동량·에어컨 사용·백신 면역 감소 등 복합 영향 일주일 전 두배, 다음달 하루 확진 20만명 예상...13일 대책 발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존 면역 뚫는 BA.5 변이의 빠른 확산과 여름철 이동량·에어컨 사용 증가, 감염·백신접종 면역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국면 전환과 함께 경각심을 당부하고,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의 강화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3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앞서 실시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27일 3423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후 점차 증가한 뒤 지난 9일에는 45일 만에 2만명대로 올라선 상태다. 예상을 넘는 빠른 확산세에 방역 전문가들은 내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재유행의 원인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급격한 확산을 지목하고 있다. BA.5 변이는 한동안 코로나19 우세종이던 BA.2(스텔스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세고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졌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BA.5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절적 요인으로 여름철 이동량과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것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 봄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유행확산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의 '국가감염병위기관리 자문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7일간 의무 격리'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방역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지역도 최근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광주 370명, 전남 440명 등 810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대 수준에 머물렀던 광주는 지난 5일부터 300명대를 기록 중이고, 전남도 지난 4일부터 300~400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임야·삽·니·다

천평이상,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농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생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원도군 원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07월 08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1,205,000,000원 중 1,192,95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12,05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감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회사의 주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주식회사 케이씨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5-231호 (봉명동·유성저수지상가동)
공동대표이사 김 현 태, 허 정 길

산행안내

7월16일(토)

▲**광주호산회** 7월 16일 (토) 통영 욕지도 섬산행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롯데백화점 06시 15분 예술회관후문 ※ 다음 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여행구독 220-0550